

축구

8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전력 살찌운 포항 근거 있는 자신감

김기동 감독 “선수들 눈빛이 다르다”

포항 스틸러스가 2020시즌을 대비한 해외 전지훈련에 나섰다. 포항 선수단은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태국 부리람으로 떠났다. 태국은 기온이 높아 훈련에 알맞고 비용 부담도 적어 최근 K리그에서 가장 각광 받는 전지훈련지다.

포항은 지난 시즌 16승8무14패(승점56)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지는 못했지만 시즌 중 감독 교체, 주축선수 이적 등 부침을 겪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다. 특히 시즌 막바지 김기동 감독이 추구하는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경기력이 몰라보게 달라져 차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 감독이 새 시즌 내세운 목표는 명확하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전지훈련에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팀 조직력을 견고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 감독은 “올해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포항은 이번 이적시장에서 선수보강을 쓸쓸하게 한 팀으로 손꼽힌다. 임대를 통해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최영준(29)과 1년 더 인연을 이어가게 됐고 지난해 K리그2 베스트11에 선정된 측면 수비수 김상원(28), 아시아쿼터도 미드필더 브랜던 오닐(27·호주) 등 젊은 자원들을 영입해 스쿼드를 살찌웠다.

김 감독이 가장 믿는 구성은 바로 팀 분위기다. 선수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눈빛부터가 다르다.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는 없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강한 포항의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토트넘 손흥민(오른쪽)이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끝난 2019~2020 잉글리시 FA컵 3라운드 재경기에서 미들즈브러 수비수의 견제를 따돌리고 불을 켜고 있다. 토트넘이 2-1로 이긴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또 다시 침묵했다.

‘29분 활약’ 손흥민 “마지막 실점 아쉽다”

여기는 런던

미들즈브러전 후반 16분 교체 투입
토트넘 2-1 승리...FA컵 4라운드행

손흥민이 활약한 토트넘 핫스퍼가 2019~2020 잉글리시 FA컵 4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15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의 3라운드 재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앞선 미들즈브러 원정에서 1-1로 비기면서 결국 재 경기를 치르게 된 토트넘은 전반 초반 두 골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 종료직전 허망한 실점으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후반 16분 루카스 모우라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고,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토트넘의 주제 무리뉴 감독

은 “실점으로 이어진 실수도 안타깝지만 수많은 골 찬스를 잃어버린 것이 훨씬 아쉽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다음은 경기 후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FA컵 4라운드에 올랐다.

“정말 중요한 대회다. 원정 1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부담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지배했으나 경기 막판 실수가 나왔다. 너무 쉽게 실점에 아쉽다. 일단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 건 좋은 일이나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여기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헤리 케인의 부재로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를 받는다.

“딱히 오늘 경기에서 집중적으로 견제당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비를 할 때나 공격을 할 때나 어떻게 플레이해야 상대를 힘겹게 하는 지 잘 알고 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K리그 스토브리그 새 트렌드

베테랑도 다년계약

전북, 김보경·홍정호 등 3년 이상 선수들 심리적 안정...활약 기대감

K리그의 겨울은 축구 팬들에게 답답한 시기다. 하지만 긴 시즌을 마무리한 모든 구단들은 답답함을 느낄 새 없다. K리그2를 망라하고 가장 치열한 머리싸움이 이어지고, 밤낮 없이 업무를 봐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흔히 스토브리그로 불리는 선수이적시장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열리지만 새 시즌 농사를 위한 대부분 선수단 재 정비 작업이 이 무렵 집중된다. 휴식기를 맞은 선수의 입장을 대신할 에이전트와 각 구단 운영 담당자들은 이적과 임대, 계약연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 테이블을 열어 눈치 싸움을 벌인다.

이번 겨울은 지난해에 비해 쓸쓸한 이슈가 많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1차전이 2월 11~12일 열리고, 정규리그 1라운드 2월 29일 개막하는 등 전체적인 2020시즌 스케줄이 앞당겨져 대부분의 팀들이 서두른 결과다.

이 과정에서 대어급 선수들의 소식이 자주 들려왔다.

스토브리그 중심에는 리그 3연패에 성공한 전북 현대가 자리했다. 지난 시즌 K리그 최우수선수(MVP) 김보경(31)과 2년 간 임대로 활약한 홍정호(31)를 완전 영입했다. 지난 연말 계약이 만료된 국가대표 오른쪽 풀백 이용(34), 강원FC 이적설이 나온 이주용(28)과도 재계약했다. 2019시즌을 울산 현대에서 보낸 김보경을 제외한 나머지 잔류였지만 ‘이적’ 못지않게 임팩트가 컸다.

김병수 감독의 강원도의 행보도 놀라웠다. 전북에서 FA(자유계약선수)로 풀린 공격수 고무열(30)과 중앙수비수 임채민(30)을 데려와 최전선과 뒷문을 두

루 보강했다. 성남FC도 ‘셀링 클럽’ 이미지를 확실히 버렸다. 골키퍼 김동준(26)을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넘겼으나 권순형(34), 임선영(32·이상 성남)을 데려와 알찬 수확을 올렸다.

K리그2도 뜨거웠다. 강등의 아픔을 맞은 경남FC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지난 시즌 사상 처음 도전한 ACL을 위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커리어를 쌓은 조던 머치(잉글랜드) 등을 데려오며 신선한 충격을 준 경남은 설기현 신임 감독이 오래 전부터 눈독 들인 울산 황일수(33)와 수원 FC 출신 백성동(29) 등을 영입해 강한 재도약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공통분모가 있다. 베테랑에 대한 예우다. 이는 단순한 연봉과 금전적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계약기간에 정성을 쏟았다. 김보경·홍정호·이용·이주용 모두 전북에서 3~4년(올시즌 포함)을 보장받았다. 고무열·임채민 또한 3년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선영과 황일수, 백성동 모두 3년으로 파악됐다.

사실 20대 초·중반의 영건이 아닌, 베테랑들과 3년 이상의 다년계약을 진행하는 건 구단 입장에서 꺼려지는 작업이다.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제2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급여를 탈 뺄더라도 긴 계약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다. 유럽 여정을 마친 박주호(33·울산)가 2018시즌을 앞두고 K리그로 향할 때 우선시한 조건도 계약기간이었다.

한 중견 에이전트는 “부상 등으로 전열을 이탈할 경우, 또 추후 퇴출 때를 생각하면 분명 구단은 리스크를 안고 있으나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게 돼 그만큼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 잃는 만큼 얻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북, 남아공 국가대표 벨트비크 영입

K리그1 전북 현대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1부 리그) 스파르타 로테르담에서 활약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대표 최전방 공격수 랄스 벨트비크(28)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2020년 1월 6일자 스포츠동아 단독 보도). 계약기간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네덜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2년으로 알려졌다.

성남, 베테랑 미드필더 임선영과 계약

K리그1 성남FC가 베테랑 미드필더 임선영(32)을 영입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2020년 1월 3일 스포츠동아 단독 보도). 지난 시즌까지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임선영은 K리그 통산 186경기에서 28골·14도움을 올린 특급 중원 자원으로 기본기가 탄탄하고 재공격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9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남자프로농구 (14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SK	32	21	11	0.656	0
2	인삼공사	33	21	12	0.636	0.5
3	DB	31	18	13	0.581	2.5
4	전지연드	33	19	14	0.576	2.5
5	KCC	33	18	15	0.545	3.5
6	KT	33	15	18	0.455	6.5
8	현대모비스	33	15	18	0.455	6.5
8	삼성	32	13	19	0.406	8
9	LG	33	12	21	0.364	9.5
10	오리온	33	11	22	0.333	10.5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연속		
선수	팀	득점	도움	선수	팀	연속		
① 라켄	LG	21.6	① 허훈	KT	7.2	① 라켄	KCC	12.9
② 워니	SK	20.6	② 김시래	LG	5.5	② 라켄	LG	10.8
③ 라켄	KCC	20.1	③ 이정현	KCC	4.5	③ 워니	SK	9.9
④ 미네리	삼성	19.1	④ 박찬희	전지연드	4.4	④ 멀린스	KT	9.8
⑤ 브라운	인삼공사	17.4	⑤ 박지훈	인삼공사	4.4	⑤ 오야쿠	DB	9.6

프로배구 (14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현대건설	15	12	3	33	1321
2	한국생명	16	10	6	33	1442
3	GS칼텍스	15	9	6	28	1313
4	KGC인삼공사	15	6	9	16	1407
5	한국도로공사	15	5	10	16	1275
6	IBK기업은행	16	4	12	12	1320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우리카드	20	14	6	39	1818
2	대한항공	21	14	7	39	1903
3	현대캐피탈	19	11	8	33	1686
4	OK저축은행	20	11	9	32	1721
5	삼성화재	20	10	10	32	1757
6	KB손해보험	20	5	15	18	1825
7	한국전력	20	5	15	17	1657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세트당 블로킹		연속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①	비에나	대한항공	544	①	신영석	현대캐피탈	0.82
②	가빈	한국전력	437	②	김홍진	KB손해보험	0.76
③	필리페	우리카드	378	③	김규민	대한항공	0.71
④	송영근	OK저축은행	329	④	박상하	삼성화재	0.68
⑤	나경복	우리카드	294	⑤	최민호	현대캐피탈	0.67

NBA (15일)							
*팀순위							
동부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		승		패	
순위	대서양지구	순위	대서양지구	순위	남서지구	순위	
1	보스턴	27	11	1	밀워키	36	6
2	토론토	25	14	2	인디애나	25	15
3	필라델피아	25	16	3	시카고	14	27
4	브루클린	18	21	4	디트로이트	14	27
5	뉴욕	11	30	5	클리블랜드	12	29

*경기결과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결과
1	01.16(목) 10:00	시카고B	vs	워싱턴W	유나이티드센터	118-107
2	01.16(목) 11:30	휴스턴R	vs	포틀랜드T	도요타센터	121-110
3	01.16(목) 12:00	새크라K	vs	델러스M	골든1센터	124-97

*경기결과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결과
1	01.16(목) 10:00	시카고B	vs	워싱턴W	유나이티드센터	124-97
2	01.16(목) 11:30	휴스턴R	vs	포틀랜드T	도요타센터	118-107
3	01.16(목) 12:00	새크라K	vs	델러스M	골든1센터	121-110

*경기결과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결과
1	01.16(목) 10:00	시카고B	vs	워싱턴W	유나이티드센터	118-107
2	01.16(목) 11:30	휴스턴R	vs	포틀랜드T	도요타센터	121-110
3	01.16(목) 12:00	새크라K	vs	델러스M	골든1센터	124-97

*경기예고						
*여자프로농구 (16일)						
KEB하나		우리는행		우리는행		우리는행
*2019-2020 하나원큐 WKBL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2020 호주오픈 테니스대회(호주 멜버른)						
*남자 단식 예선 1회전=이덕희(한국) 2-1 지안네시(이탈리아)						

*오늘의 토토 (16일)						
*농구토도 스페셜N 11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결과
1	01.16(목) 10:00	시카고B	vs	워싱턴W	유나이티드센터	118-107
2	01.16(목) 11:30	휴스턴R	vs	포틀랜드T	도요타센터	121-110
3	01.16(목) 12:00	새크라K	vs	델러스M	골든1센터	124-97

*아마추어 경기예고 (16일)						
*축구						
*제 16회 KBS N 1.2학년 대학축구대회(창녕군, 오후1시)						
*배드민턴						
*2020 인도네시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이스하키키						
*2019-2020 아시아리그(안양, 오후7시)						
*테니스						
*2020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최종대회 및 2020년 동계국가대표 선발대회(양산실내, 오전9시30분)						